

건강한 귀, 코, 목을 위하여

김은서 ■ 포천 중문의대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에 생기는 여러가지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한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만성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짧은 시일 안에 치료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료된 후에도 재발을 잘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이 주저하거나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질병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요구된다.

1. 귀에 생기는 병

1) 외이에 생기는 병

귀지는 피부의 기름과 각질이 합쳐져 생기는데 외이를 보호하여 귀를 후빌 때 피부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며 염증에 대한 방어작용도 한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귀지를 닦아내면 외이도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귀가 몹시 가렵거나 아플 때는 이진균증이나 습진성 외이도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진균증은 곰팡이가 번식하여 발생하며 무좀처럼 진물이 흐르고 매우 가렵다. 항진균제를 바르며

심하면 항진균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습진은 알레르기성 피부염의 일종인데 가렵더라도 귀를 후비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약물 투여 및 연고의 사용으로 치료할 수 있다.

여름철에 수영을 한 뒤 귀에 물이 들어가서 면봉으로 닦고 난 후 하루이틀이 지나 귀가 쑤시면서 두통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절이라고 부르는 병으로서 세균감염의 일종이다.

2) 중이에 생기는 병

이관은 중이와 비인강(코의 뒷부분에 있는 공간)을 연결해 주는 공간으로 이관의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도 귀가 멍멍하고 잘 듣지 못한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병을 앓게 되는데 중이 내에 고여 있던 진물이 끈적끈적하게 변하여 배출이 안되며 진행된다면 만성 중이염이 된다.

만성 중이염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이다. 중이염이 만성화되면 고막의 구멍이 메워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름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오래되면 소리를 전달해 주는 이소골도 파괴되고 주위의 뼈까지도 녹일 수 있는 진주종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고막이 뚫려 있는 경우는 고름이 나오지 않도록 치료받은 뒤 고막 성형술을 받아야 한다.

3) 내이에 생기는 병

일반적으로 앓았다가 갑자기 일어선 면 어지럽다든지, 빈혈이 있는 환자들이 느끼는 어지럼증과는 달리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낀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투여를 하지만 급성기가 지난 뒤에는 운동요법으로 약화된 전정신경을 자극시켜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을 쓴다.

귓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이명증은 감음신경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며칠 또는 몇개월 후에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면 청력검사와 필요하면 컴퓨터

촬영등을 하여 청신경종양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4) 어린이의 난청

어린이의 난청은 유전적이거나 선천성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상적으로 태어났어도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대상포진등을 심하게 앓은 후 청력이 소실되어 난청이 될 수 있다. 청력검사는 신생아 때 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황달이 심했던 아이, 선천성 기형이 있는 아이, 엄마가 임신동안 심한 열병을 앓은 경우, 가족 중 난청환자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조기에 청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코에 생기는 병

1) 급성 및 만성 부비동염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성, 유행성 질병이다. 예로부터 감기는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했듯이 코에도 여러가지 질환을 일으킨다.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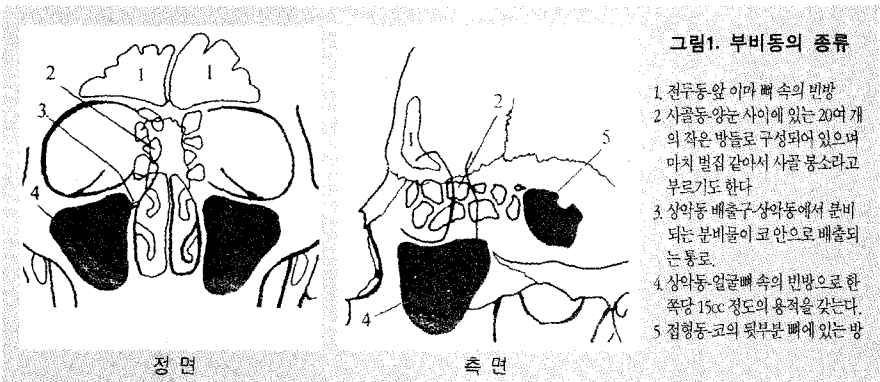


그림1. 부비동의 종류

1. 전두동 앞 이마 뼈 속의 빈방
2. 사골동 양눈 사이에 있는 20여개의 작은 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벌집같아서 사골 봉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삼악동 배출구상악동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코안으로 배출되는 통로
4. 삼악동 얼굴뼈 속의 빈방으로 한 쪽당 15cc 정도의 용적을 갖는다.
5. 접형동 코의 뒷부분 뼈에 있는 방

기 초기에는 코가 막히고 콧물이 증가하는 비염증상이 나타나며 3일이 경과하면 세균에 의한 이차적 감염이 일어나 급성 부비동염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코 주위에는 앞의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빈 방이 있는데 이들을 통털어 부비동이라고 부르며 부비동에 염증이 있으면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에 걸리게 된다. 급성 부비동염의 가장 큰 원인은 감기에 따르는 급성 비염이다. 급성 비염으로 콧 속의 점막이 부으면 분비물의 배출이 방해받고 세균이 번성하게 되어 급성 부비동염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이 잘 치료되지 않고 남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부비동염에 걸리면 코가 막히고 고름 같은 콧물이 흘러나오거나 목구멍 뒤로 넘어가며, 냄새를 잘 못 맡고 악취가 날 수도 있다. 내시경 및 엑스선 사진등을 이용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부비동염으로 밝혀지면 급성의 경우 약 1주이상, 만성의 경우 약 4주이상 약물을 투여해야 하며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부비동염은 내시경, 레이저등을 이용해 수술할 수 있다.

2)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집 먼지와 그 속에 들어있는 진드기류의 분비물이

나 껌질등이며 이것은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또 계절성의 가장 흔한 원인은 산썩 종류의 꽃가루와 곰팡이류이다.

치료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 약물요법, 수술, 면역요법이 있는데 증상의 정도 및 검사 소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3) 후각 장애

냄새를 못 맡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분류하면 염증성, 폐쇄성, 신경성, 원인불명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의해 코 점막이 붓고 분비물이 많으면 후각부위의 점막에도 염증이 생겨 냄새를 못 맡게 되는데 염증치료가 잘 되면 후각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후각세포들이 완전히 손상되어 염증이 치료된 후에도 후각은 회복되지 않는다.

감기나 독감을 심하게 앓은 뒤 후각을 잃은 경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 후각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후각이 회복될 가능성이 적다.

3. 목에 생기는 질환

1) 편도 질환

어린 아이들이 큰 소리로 울 때 입을 열어다보면 위의 그림과 같이 목젖 양옆으로 딸기 같이 우둘우둘한

아몬드형의 조직이 보인다. 이것을 구개편도라고 하는데 편도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심하게 생기면 중이염, 부비동염 등 주위의 기관에 염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류마티즘, 심낭염, 사구체염 등 전신질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급성 편도염은 앞에서 소개했던 구개편도를 비롯하여 주위의 입파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으로 구개편도의 경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편도주위염으로 발전하고 입천정이 부어 올라 식사곤란과 함께 호흡곤란도 일으킬 수 있다. 급성 편도염은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가 잘 듣는 편이므로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위와 같은 상태까지 악화되지는 않는다.

만성편도염은 인두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중의 하나이다. 어린이가 감기나 인후염 등에 반복적으로 걸리면 편도의 조직이 증식되어 만성적으로 커지게 된다. 만성편도염은 약물치료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므로 필요한 경우 수술을 하여 비대한 편도조직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2) 목에서 느껴지는 이물감

목에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음식을 삼키기 위해 근육을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자율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육들의 긴장도가 높은 경우에는 외견적으로 보아서 정상이지만 목의 이물감을 심하게 호

1. 비인강의 천정
2. 이관 입구부
3. 연구개
4. 구개편도
5. 후두개골
6. 후두개
7. 설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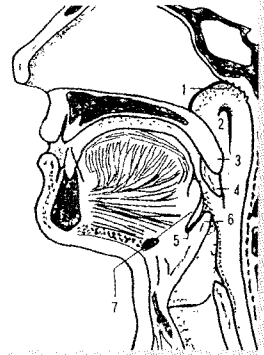


그림2. 구강, 인두의 구조

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식도 역류에 의한 후두염이 경부 이물감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

목소리는 후두라고 부르는 소리상자 속의 성대가 규칙적인 진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므로 후두에 자극을 주는 습관, 예를 들면 헛기침, 흡연 등에 의하여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 후두건조감과 함께 목소리가 변할 수 있다. 목에 심한 충격을 받거나 갑상선 등의 수술을 받은 뒤 성대마비가 오는 경우에도 목소리가 변한다. 이렇듯 목소리가 변하게 되는 질병은 매우 많은데 목소리가 변하여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성대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두암, 하인두암 등 악성종양의 경우에도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하면 비교적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 †